

● **유관기관 동정**

과학기술부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2,002억원 투입

- 방사선 뇌과학연구 등 신규사업 착수 -

과학기술부는 1월 11일 「원자력연구개발심의위원회」(위원장 : 최석식 과학기술부 차관)를 개최하여 「2005년도 원자력연구개발사업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

동 계획에 따르면 정부예산 및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재원으로 올해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총 2,002억 원을 투입하여 원자력 핵심기술 개발, 방사선 이용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게 된다.

2005년에는 ▲원자력의 평화적이용 4원칙 등 국내외동향 변화 및 원자력기술지도(NuTRM)작성 결과를 반영한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07~'11) 수립을 위한 기획 ▲미래 원자력시스템에 대한 국제공동연구 참여 및 국가간 원자력공동위원회 합의사항 등을 반영한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발 및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기술 개발 ▲수소에너지 시대를 대비한

‘원자력이용 수소생산시스템 개발사업’의 전략적 추진 ▲방사선 뇌과학연구, 방사선 손상평가기술 등 수요지향적 신규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며, 국제경쟁력이 있는 우리 고유의 핵심 원자력기술 개발 등 계속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된다.

또한, 국민복지 증진을 위한 ‘권역별 싸이클로트론 연구소 추가 구축’ 및 ‘방사선 뇌과학연구’ 등 방사선 이용기술 개발 및 관련 분야의 이용확대, 산업육성, 기반시설 확충 등도 체계적으로 추진된다.

금번 확정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 ▲중장기계획사업 ▲연구기반확충사업 ▲핵심기술개발사업 ▲양성자기반 공학기술개발사업 ▲방사선기술개발사업 ▲연구기획·정책·평가사업 ▲원자력이용 수소생산시스템 개발사업 ▲국제협력기반 조성사업으로 구성 되어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은영수)은 최근 국내 원자력이용기관의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을 국가 차원에서 상호 연계한 통합적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6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1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통합정보시스템(WACID: Waste Comprehensive Information Database System)’으로 명명된 이 시스템은 2002년 7월부터 2004년 5월까지 과학기술부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되었으며, 중·저준위폐기물, 사용후핵연료, 방사성유출물 등 8개의 세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WACID 시스템은 ▲원자력법에 따른 보고요건 이

행 ▲개별 기관이 제공하는 데이터 검증 ▲국제원자력기구 제출용 데이터 생산 ▲방사성폐기물 발생/저장량 예측 ▲방사성폐기물 데이터의 장기보존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특히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에 관한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설명 자료와 1,000여건이 넘는 방대한 문헌자료, 이미지 정보, 용어사전 등의 정보를 인터넷(<http://wacid.kins.re.kr>)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앞으로 WACID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과 이해당사자들에게 국내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에 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